



사진 : 최동환 다미아노 (남천성당 · 세상 속의 십자가 공모전 은상)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

제1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

화답송 시편 31(30),3다르~4.6과 7나과 8ㄱ.17과 21ㄱ나
(◎ 6ㄱ 참조)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1.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2.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3.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2독서 로마서 5,1~5

복음 환호송 마태 5,10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오 10,17~22

영성체송 마태 16,2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순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의탁, 신뢰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의탁은 누군가의 선함과 성실함을 믿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신뢰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원하신다.

의탁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신뢰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갖출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

의탁은 믿음의 태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모든 이들에게 바라셨던 것이다. 이 내어 맡김의 태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믿는 생생한 믿음에서 솟아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 최고 정점이 바로 순교다. 순교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실존적 행위인 완전한 의탁의 태도다.

오늘은 하나님 자비에 완전히 의탁함으로써 영광을 드리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다. 성인은 16세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을 품고 마카오로 건너가 1845년 상해 연안에 있는 김가향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입국하였으나, 이듬해인 1846년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모진 고초를 겪은 후, 새남터에서 순교하셨다. 성인은 그 당시 한국교회의 수많은 양떼를 돌보실 수 있었지만, 이보다는 하나님 섭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고, 더 풍성한 은총을 한국 교회에 주시는 순교의 영광을 받으

셨다. 다시 말해 오직 주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 이곳(now and here)에서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자비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치하면서 그분 자비에 완전히 의탁하셨고, 이로 인해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익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초석이 되셨다.

이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의탁의 태도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구원사업의 충실한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큰 용기와 위로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손 원 모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
로사리오의집 관장



은
전
한
날

바람에 만난 당신

꽃이 향기를 피우기 위해
바람이 꽃을 흔들어 줍니다.
당신이 그리워 기도드리면
성령이 마음을 흔들어 준다.
연둣빛 바람 불어 부활이 오니
초록 훈풍에 성모님 오실 때
그때 나는 창포에 머리감고
푸른 오월 하늘 묵주 다리 넘는다.

글. 정원도 요셉(좌동성당 / 2020 짧은 묵상 시 공모전 당선)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사랑이 있는 세상

월~토 11:00~12:00
진행: 김현지 리나

7.6(월) 부산가수다

출연: 티없으신성심수녀회(이정순 프란치스카 수녀, 나미숙 에울랄리아 수녀)

신부들의 수다

토요일 13:00~14:00
진행: 홍영택 신부, 김병희 신부, 이추성 신부

▶ 부산cpbc 유튜브 특강

〈신앙을 지켜주는 교회법〉
남영 세례자 요한 신부

〈달리 보이는 인문학〉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 헬레나 소장

유튜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검색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침, 저녁나절의 바람이 한낮의 더위를 식혀 아직은 견딜만한 날들입니다. 여름이 점차 익어 갈수록 한 줄기 바람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겠지요. 그리고 여느 해처럼 대지가 햇살을 견뎌내면 어느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겁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존재와 변화까지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열기나 냉기로, 때론 속삭이고 때론 휘몰아치며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바람. 그런데 처음 이 바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바람을 공기의 움직임으로 설명합니다. 공기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입자와 파동으로 분석하는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과학에서조차 바람과 햇살과 우주의 시초를 원자의 우연한 부딪힘이나

확률로 설명합니다. 이른바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연히 그냥 생기는 일이 있을까요? 내게는 인간의 인식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인간의 인식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바람의 시원(始原)을 좇아가면 바람뿐 아니라 햇살, 녹음, 생명, 영혼이 시작된 그곳에 닿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곳. 그리고 흠으로 우리를 빚으신 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의 숨결을 그려봅니다. 바람이 생겨난 곳은 그곳이 아닐까요?

바람의 속성은 머물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힘든 땀방울을

스쳐 가는 바람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위로의 속삭임 같기도 합니다. 세상의 존재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흩씨처럼 하느님의 섭리 안에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가벼운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말 ‘바람’은 무엇을 바란다는 희망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람이 시작된 그곳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부터 와서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살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 **탁 은 수** 베드로

광안성당 · 언론인 fogtak@naver.com



"바그다드 카페" - 야스민이 되어 행복을 쟁기는 게 어떨까

■ 1987년작 ■ 감독 : 페시 애들론

삶은 떠남과 남겨짐, 또 다른 만남의 연속이다. 떠나는 이는 떠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남겨진 이는 남겨진 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 만남은 시절 인연이기도 하고, 오랜 지기도 된다.

라스베이거스 근처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바그다드 카페. 카페 주인 브렌다는 일상에 지쳐 늘 화가 나 있다. 고장 난 커피 머신과 먼지투성이인 카페 손님은 사막을 지나치는 트럭 운전사들이 전부다. 딸은 건달들과 싸다니고 아들은 피아노만 쳐댄다. 빈둥거리던 남편은 쫓겨나듯 떠났다.

여행 중인 독일인 부부는 말싸움을 한다. 야스민은 남편을 두고 짐을 끌며 황량한 사막을 걷는다. 두벅두벅 걷는 그녀의 등 뒤로 calling you가 흐른다. 음악은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며 쓸쓸함을 보여준다.

남편을 떠난 야스민과 남편이 떠나고 남겨진 브렌다가 만난다. 낯선 그녀들의 동거가 시작되며 바그다드 카페가 변

화한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상이 온다고 했다. 작대기 같은 그들에게 솜사탕으로 온 야스민. 먼지가 날리던 카페에 바람이 분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건네는 공기가 달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힘겹지만 행복하다. 일상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저마다의 향기로 어우러진다. 같은 곳,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달라졌다.

야스민이 떠나고 다시 느릿한 정적의 일상이 되는 건 어찌된 것일까?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날마다 있지 않은가. 지금 야스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야스민이 되어 행복을 쟁기는 게 어떨까.

■ 이미지 출처리아 (가톨릭영화제 프로그래머)cecil-e@hanmail.net



← 빈첸시오

2020년 7월 1일

예고, 후보 한마음한몸 운동에 나오는 사연들 보면

어찌 그리 다들 어려운지 맘이 아프다.

빈첸시오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더 큰 걸 주시려고..

여이 친구, 하느님의 뜻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다.

그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게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거겠냐?

또 그 이상 더 큰 게 뭐가 있겠고.

그분들은 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시건데.

빈첸시오

아니, 그냥 따로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도 노력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도와주고

그렇게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때 하느님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

빈첸시오

그분들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주고, 도움될 만한 게 있으면 하고..

그래, 그래도 후보에 사연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더라.

빈첸시오

다행이네.

맘 아파하지만 말고, 도와드려야지.

오늘은 술 한잔 대신 후원하는 걸로^^

사람은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출생하므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한 3,5 참조) 곧, 유아세례를 통해 원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해야 합니다. 세례 성사는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선물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녀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아세례는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아이들을 은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영유아에게 세례를 주면 자녀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는 편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유아세례를 망설이는 대다수 부모의 생각입니다. 언뜻 합리적이고 올바른 듯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유아세례로 인도하는 건, 자녀를 유치원과 학원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던 원치 않든 다양한 학업과 레슨으로 어린 자녀를 이끕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학습으로 자녀의 잠재력과 능력을 키워, 장차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양한 교육시설로 어린 자녀를 보내는 걸 두고, 우리는 누구도 자녀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학교와 학원을 선택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를 각종 학업으로 이끄는 걸 부모의 마땅한 도리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아세례는 하느님과 신앙을 아직 모르는 자녀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장차 자녀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영원한 생명을 유산(遺産)으로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유아세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고귀한 선물을 안겨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 송현 로마노 신부
가정사목국장



유아세례 리플릿
무료신청
family@catb.kr



코로나19 이후, 첫 모임 재개 (2)



비정규성체분배직무수여교육



171차 사제평의회



당리 (합동레지오)



옥동 (예비신자교리)



성안 (레지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서대신



양정 (산행)



범서 (소공동체 모임)

6월 28일(일)
주임 : 김종엽 신부, 회장 : 전철우 스테파노



길천



인보 (레지오)



대연 (청년 레지오)

6월 28일(일)
주임 : 이성균 신부, 회장 : 전임수 분도



덕신

6월 28일(일)
주임 : 손지호 신부, 회장 : 박경열 아우구스티노

성모여자고등학교, 성모역사관 축복식



례로 거행되었다. 성모역사관은 학교 역사관, 동창회 역사관, 동창회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교 역사관에는 옛 교복 전시, 디지털 영상실(학교 홍보 및 졸업생 인터뷰, e-book), 학교 설립 역사 및 특색 사업 등이 전시되어 있다.

지난 6월 23일(화) 성모여자고등학교에서 성모역사관 축복식이 성모학원 상임이사 조동성 신부의 주



양산

6월 28일(일)
주임 : 김성한 신부, 회장 : 고영춘 돈보스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및 사용 내역 [6월 23일~6월 29일]

-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사용 내역] 소계 : 44,000,000

울산대리구 사회사목국	20,000,000
정하상바로영성관	20,000,000
해양사목	4,000,000

누계 : 329,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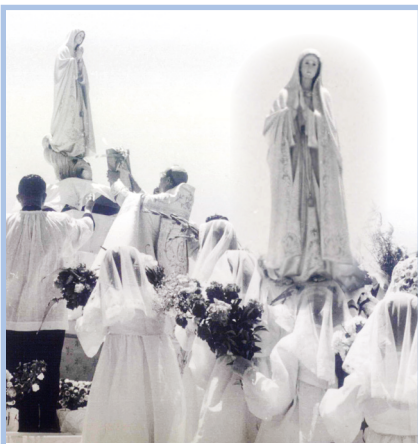
[모금 내역]

사하성당 670,000	연양복지분과 100,000	마리아 1,000,000	정예진 50,000	박순옥 50,000
이영애 100,000	박순덕 50,000	정문순 50,000	박지인 50,000	조영미 100,000
서기훈 100,000	김명자 10,000	윤미정 100,000	조현욱 100,000	심연옥 50,000
서영미 100,000	김명희 100,000	백선애 100,000	백승렬 100,000	장희정 50,000
홍희천 60,000	김혜숙 100,000	한성국 30,000	양옥리 50,000	김현국 200,000
이동윤 100,000	신용선 10,000	백영자 100,000	한순옥 100,000	이종성 100,000
윤기주 100,000	김동철 30,000	김문정 1,000,000	김소정 30,000	이종임 100,000
리디아 125,000	박광순 100,000	정미연 100,000		

누계 : 726,152,790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성모상'을 찾습니다.

1967년 5월 28일 옛 부산역 광장에서 실시한 부산교구 설정 10주년 기념 성체대회에서 사용한 성모상의 소재와 사연을 아시는 분께서는 연락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교구 초기 모습 및 행사 등의 사진을 소장하신 분께서도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51-629-8751

부산교구 소속 군종사제 인사 발령

성명	계시된 곳	가시는 곳	부임일자
정태화	칠성대 성당 주임(육군 군수사령부)	상무대 성당 주임(상무대 근지단)	2020.7.3.
김창환	충무 성당 주임(제39사단)	통일대 성당 주임(미사일 사령부)	
박근혁	광성대 주임(공군 군수사령부) 겸 은하수 성당 주임(제1방공포여단)	광성대 주임(공군 군수사령부)	2020.7.3.
정한시	화랑대 성당 주임(육군사관학교)	전역(부산교구) 2020.6.30.	
박종석	해군중앙 성당 주임(재경군무지원대대)		2020.7.3.
안원철	비룡 성당 주임(제25사단)	강철 성당 주임(제50사단)	
류창훈		열쇠 성당 주임(제5사단)	2020.7.7.
최연수	2020.7.1. 임관	만포대 성당 주임(제2합대)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토크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야기

아프리카 수단에서 헌신하다 마흔 여덟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 십년 후 그분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 의사, 약사, 공무원, 의대에 다니는 제자만 40여명. 놀라운 것은 모두가 이태석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신부가 돌아왔다고 기뻐한다.

- 7월 9일 대개봉
- 감독 : 구수환
- 전국 CGV 개봉 (자세한 상영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십만 킬로미터 대장정, 일 년 간의 추적. 인간이 인간에게 꽃이 되어 주는 감동을 공개한다.

눈시원안과 이현석(분도) 전. 곳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631-6622 상공회의소 옆 이샘병원 3층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례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협성주단·한복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선 안쪽) 646-1123 010-3594-2137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경우(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척추, 관절/통증, 재활/도수물리/물리치료 김병호정형외과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김병호(루카) 752-0020 수영구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앞(4/5층)
한울타리노인복지센터 찾아가는 이동 목욕차량 서비스 (방문목욕, 방문요양) 노인성 질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비지원 85~100% 문의사항 상담환영 257-8120	성지순례 전문 나가사키 / 대마도 010-8511-2442 (주)발해투어 황백현(프란치스코)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덕천 길맥외과의원 원장. 박우일(요셉) 331-8888, 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바게뜨 건물 6층	전화 주문, 전국무료배송 정관장홍삼전포점 박상균(미카엘), 장은아(루시아) 2호선 전포역 2,4번 출구 819-2304 010-3584-7347

지원자 월모임

· 7.12(일) 10:30 · 교구청 2층 성소국
문의 : 629-8760~2(성소국)

기관·제 단체·위원회

해양사목 월미사

· 7.13(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문의 : 464-2707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7.13(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7.14(화) 10:00 아음성당
부산 : 7.14(화) 15:00 남천성당 소성당
평화방송 : 7.25(토) 15:00 중앙성당 소성당
문의 : 600-8800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 미사

7월 김해, 울산, 부산 후원회미사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 782-0765

교구평형 모바일 성경쓰기 자체시상

<한국평형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이
벤트 -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쓰기>에 부산교구
별도 시상
시상 : 1등(한국평형), 2등, 3등, 특별상(교구평형)

청년특별판 이벤트
7월의 청년 미션

청년단체 (청년회, 성서모임, 레지오 등)
첫모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가톨릭부산(or 천주교부산교구)
카카오톡 채널로 인증샷과 함께 본당, 단체명,
이름, 세례명,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티마의세계사도직 7월 금요철야기도회

· 7.10, 17, 24, 31(금) 21:30~ · 푸른군대 경당
내용 : 고해성사, 성시간, 썰기도
(23:00 미사, 04:00 미사)
문의 :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 성명(본당, 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
소(사세회), 제대일 / 활동 :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또는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7층(14평, 16평, 20평, 51평)
문의 :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교육·모집·기타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7.9(목) 14:00 · 푸른군대 지하 경당
문의 : 634-4820, 636-4819

향기나는 길-LD모임

· 매주 목요일 19:30~21:00
·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원
대상 : 35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 010-8551-3312(대건 수녀)

힘들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 하는 부산의 도심형
실버타운 / 입주 : 독립생활 가능한 만 60세 이상
문의 : 758-6231, 010-5574-6231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성경완독피정 : 7.17(금)~25(토), 8.4(화)~12(수)
효소단상피정 : 7.30(목)~8.2(일)
하계피정 : 8.7(금)~9(일)
문의 : 010-3340-0201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왕복항공 예약가능 / 개인피정가능)
· 7.19~21, 7.25~28(우도), 8.1~4(우도),
8.6~9(우도), 8.12~15(우도), 8.17~19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7.27~29, 7.31~8.2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
니다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문의 : (064)796-9181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 매주 토 14:00~일 14:00 / 내용 : 유덕현 아빠
스와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회
문의 : 010-2816-198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서울 동선동)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 010-3817-0567(노혜인 선교사)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 8.17(월)~28(금)
학교설명회 : 7.11(토) 14:00 본교 시청각실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주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학교설명회 참석 및 입학 문의 : (061)432-9241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7.12(일) 14:00~17:00	수녀원 해바라기방	010-8551-3312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7.12(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원서접수

기간 : 7월 20일(월)~7월 24일(금)
모집학과 :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문의 : 051-510-0702~4
www.cup.ac.kr / ipsi.cup.ac.kr

부산성모병원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접종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5.12.31. 이전 출생자)
접종기간 : 2020. 6.22(월)~12.31(목)
접종횟수 : 1회 무료접종 지원

문의는 외래진료시 진료과장님과 상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

가톨릭선원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취소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차원으로 가톨릭센터
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7월 '무료영화상영회'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신차문의·전문상담사 SM6, QM6 LPG 누구나 구매가능 SM6신형, XM3, 캡쳐 출시 르노삼성자동차 영업팀장. 이 건 기 (빈첸시오) 010-8502-7514</p>	<p>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테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떼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p>	<p>SM수맥흠침대 거실 향토소파 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주보 지참 교우 우대 1588-5335</p>	<p>라이프치과의원 전문과목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철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 제 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743-3334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8층 건물(2층)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급지무로제자, 일반90%혜택)</p>
<p>21세기 유망직업 <음악치료사> 동아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석사·박사 모집 문의 : 담당교수 이지우(마리아) 010-2350-8075</p>	<p>이삿짐은 우리트렌스로 582-1414 010-4042-8662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권명숙(로사리아)</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p>	<p>해남,진도 가족여행 7/18~8월 토~일(1박2일) 18만원/인 명량대첩지, 대용사, 고산 윤선도 고택, 윤림산방, 신비의 바닷길 조개잡기 대형버스(20명 탑승) 미래고속관광 www.mrtouring.com 055-333-6300</p>	<p>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리아)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건널)</p>